

오늘의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1서 3장 23절

오늘의 주요기사

2 신년 특집

3 교회소식

4-7 장애인주일 특집 - 고백

8-9 장애인주일 특집 - 사역간증

10 장애인주일 특집 - 책 소개

11 어와나 트랙

12-14 공모전 수상작

15 목회칼럼

16 생명사랑, 목사안수, 백일장 공지



예수님 사랑하시는 장애인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애 관련 1,317구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571구절이 있는데, 전체 구절의 15%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4월 18일 장애인 주일을 맞아 드리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더 좋은 곳을 준비하는 아버지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더 좋은 곳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구, 같은 동이지만 이사 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 한다. 아이들이 다니던 태권도랑 피아노학원도 그곳까지는 차가 다니지 않아서 옮겨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아직 날짜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큰아이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학급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아내가 차로 등하교를 시키면서 1학기까지는 지금 학교를 보낼 계획이다.

그런데, 그동안 태권도 가기를 싫어했던 둘째가 갑자기 검은 띠 될 때까지 다니던 태권도장을 계속 다니고 싶단다. 유치과정에서는 놀이체육식으로 도장을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품새와 겨루기 등을 하게 되어 하기 싫다고 하더니, 이사 가면 더 이상 이곳 태권도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는 꼭 검은 띠까지 하겠다며 대신 이곳 태권도장을 가야 하니 이사도 가지 말자고 한다.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집은 인테리어도 새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집보다 깨끗하고 좋다고, 그리고 그곳에도 이어서 다닐 수 있는 태권도장이 있고 피아노학원도 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해준다.

아이는 그런 환경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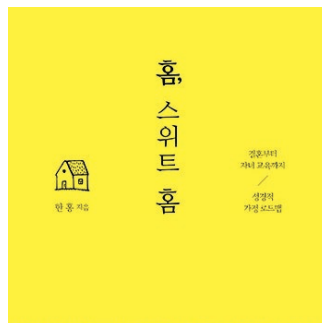
아직 이사 갈 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지금 집에 만족할 수도 있다. 마치,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니, 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도 여기에 만족한다고, 그냥 이곳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둘째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곳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지도 못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억지를 쓰는 모습으로 말이다.

내가 이사 갈 집의 아이들 방을 꾸며주기 위해 가구 배치도 이리저리 해 보고 새로 필요한 가구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 그대로.

책 속의 명문장

홈, 스위트 홈



한홍 지음, 홈, 스위트 홈, 두란노, 2016

-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다.
- 자기를 비워서라도 자식을 입히고 먹이는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부모의 사랑은 함부로 대들고 불평불만을 쏟아 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다. 하나님

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 부모는 자녀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발적으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 믿음의 가문이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를 축복하려면 축복할 만한 은혜의 샘이 부모 안에 흘러넘쳐야 한다.
-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 누구든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모범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택하신 자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 날개 밑에 숨기시고, 광야로 보내어 다듬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 물이 고이기도 전에 쏟아 버리는 식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도록 하자.
- 부모들이여, 자녀에 대해 불만스러운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으라.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의 말, 행동, 아이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
-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부모의 편협한 야심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겨 드리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이 승리와 축제로 채워질 것을 믿자.
-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 나는 부모가 늘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도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자녀 교육이 가장 확실하게 잘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역 소식

'나의 주님의교회' 공모전 시상

흘어진 일상 속, 하나님과 교회를 기억하는 시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 지침에 따라 2020년 2월 23일(주일) 주님의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추운 겨울에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또 다시 추운 겨울이 될 때까지 계속 되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 버린 삶 속에서 교회와의 거리두기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교회로 흩어져 예배드렸던 지난 1년, 시간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교회였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교회는 어떠한 의미일까? 그토록 모두가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나의 주님의교회'에 대한 각자의 추억들을 모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의 주님의교회" 공모전이 시작되었다.

접수는 3월 14일(주일)부터 3월 27일(토)까지 이루어졌으며,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2주간의 응모 기간 동안 그림 37점, 글(수필, 시, 일기 등) 30점, 영상 9점, 만들기 10점, 사진 6점, 찬양 1점, 캘리 3점 총 96점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응모된 작품은 부활주일이었던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출품된 공모전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시상 분야는 주님의교회상과 각 위원회의 지원에 따른 사랑의띠상(장로회), 성령의열매상

(안수집사회), 예배의기쁨상(권사회), 일상의거룩상(남선교회), 하나님의 나라상(여전도회), 총 6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작품상인 주님의교회상을 제외한 5개의 상은 유아숲·유소년숲·청소년숲·청년숲·장년숲 각 숲별로 주어졌다.

주님의교회상에는 맹채린 학생(청소년숲 비전트리, 19세)의 수필 "나의 주님의교회"가 당선되었다. 사랑의띠상에는 정사랑, 이루아, 윤예주, 김승원, 김홍섭, 성령의열매상에는 박민하 가족, 진채은·진승주, 정세은, 박수빈, 최우철, 예배의기쁨상에는 허인 가족, 김예성, 정다운, 김우근, 정현정, 일상의거룩상에는 조현준, 송준우, 양현준, 곽윤슬 가족, 최선희, 하나님의 나라상에는 한지민, 오현서, 도혜원, 황정민, 윤재민 총 25명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긴긴 코로나만큼이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그리움 또한 점점 짙어져간다. 이번 공모전 "나의 주님의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되짚고, 각자가 만난 주님의교회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 수상작 12면

함글함글

사역간증
농어촌선교부

천하보다 귀한 것

지난 4월 10일 토요일 금년도 첫 농어촌선교부 동역교회, 현장 방문을 함양 2곳, 거창 1곳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출하게 4명만 새벽 기도 후 바로 출발 하였는데도 주말이라 서울을 벗어 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금년도 새로 부임하여 농어촌선교부 담당 교역자로 오신 배윤환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안전하고 참 편안한 승차, 대단했습니다. 늘 장거리 운전엔 부담감을 가졌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교회는 지난해 대림절기간 강대상 촛불로 화재가 난 배흥배 목사님 시무, 함양 옥산교회였습니다. 다행히 비닐로 교회당 창문과 출입문을 방풍처리를 잘해 내부 강대상과 나무바닥, 의자 등만 타다 산소 부족으로 자연 진화가 되어 교회 건물 내부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연세 많으신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 강단, 그을린 벽체, 마루 바닥을 다 철거하고, 바닥엔 온수 보일러를 다시 시공해 난방공사를 하고 내부 벽면과 교회 외벽은 손수 목사님이 다 칠을 하셨는데, 아직 손볼 곳이 있고, 교회 지붕과 식당, 사택의 비 새는 곳 여러 곳을 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함양 모실교회로 박경남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곳입니다. 남편이 프로골퍼이시며 국기원 심사위원으로 태권도 7단, 박목사님이 태권도 5단 자녀들도 유단자로 해외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시다 신학을 하신 경우입니다. 교회 사택이 없어 옆에 부지를 매입해 금년도 사택과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가는 날이 기초 토목공사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라 레미콘 차량과 펌퍼카가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목사님 부임 이후 동네분들과 소통을 잘 하시고, 진심으로 섬기셔서 공사 진행이 원활히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뒤편 대나무 숲의 풍광과 바람이 지나는 소리, 교회 앞뜰의 수백년된 미루나무가 참 인상적인 교회입니다. 시설이 좀 낡아지면 금요 철야기도나, 농촌체험, 번잡한 도시에서 잠시 떠나 지리산의 풍광과 여유를 누리며 하늘을 볼 수 있는 쉼과 위로의 장소로 또 박목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곳으로 교우들에게 추천 합니다. 점심을 강건너 산청군에 가 간단히 먹고 마지막 거창 가조면에 위치한 생

수복지교회로 향했습니다.

이곳을 섬기는 최장수 목사님은 이곳에서 태어나 주일학교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섬기시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후임 목사님을 모실수 없는 처지라 당신께서 신학을 하시고 동네 어른들을 섬기며 농사일과 건축, 전기, 고물등을 모아 교회를 지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집을 파시고, 자식들의 도움과 농협의 대출로 헌 건물을 하나 구입 하셔서 직접 수리 및 설계변경을 하시어 연세 많으신 교우들의 동선과 환경을 생각해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고, 얻어오고, 주워온 중고품 등으로 훌륭한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을 위한 도우시려는 배려와 교회 옆의 가조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을 넘어야 학교가 유지된다고 백방으로 젊은이를 부르고, 전도하십니다.

영호님과 충청권을 오가는 중간 지점이라 오가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사랑방으로 지금도 한달에 한가마니의 밥을 해 길손 대접하는 모습, 은퇴하신 목사님과 같고 없는 선교사님을 섬기시려 숙소와 집회실을 마련하려 한 층 더 증축중인 현장을 보고, 또 서로 합심하셔서 동역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동네에 계시다 요양원에 가시면 끝입니다. 다신 마을로 안돌아 오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죠. 요양원에 안 가려해도 자식들이 보내니, 울면서 가죠. 믿지 않는 집도 마지막 때에 저를 부릅니다. 날숨을 쉬고, 들숨을 쉬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을 보시며 한 영혼의 소중함과 구원의 사명을 위해 꽃대를 향해 달려 갑니다."

올라오는 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함을 아시고, 이름없이 빛도없이 현장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당신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원초적인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의교회와 한국교회의 농어촌선교란 무엇일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보이지 않고, 잊고 사는 나의 바로 뒤가 아닐까?

구태호 집사 / 농어촌선교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영혼

지난 4월 18일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며,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한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행사가 열립니다. 한편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 나라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72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가운데 통계적으로 비가 가장 드물게 오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거행한 것이 ‘장애인의 날’의 기원입니다. 국제연합(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된 뒤에 정부에서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적용과 복지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처럼 생각보다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장애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장애와 관련한 구절이 1,317구절이나 나온다고 <장애인의 성경적 이해> (이재서, 2009)라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절이 1,149구절이니 이보다도 많은 분량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신다, 구약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없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구약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실 분 이심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렘31:7-9) 중에 장애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이지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너무나 많이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복음서 전체에서 장애 관련 구절은 총 571구절로 4복음서 전체 구절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얼마나 중시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애인관련 사역을 하셨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사는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휠체어에 앉은 김동관 안수집사가 드렸고, 성경 봉독은 사랑나무의 이영진 청년이 맡았습니다. 영상뉴스의 오프닝멘트와 클로징멘트도 사랑나무의 성동현 청년이 맡았습니다. 3부에서는 에바다부에서 수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 장애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실 터입니다.

함글함글



장애인 주일 특집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 순간 감사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장애란 큰 벽 앞에서 아파서 고통받을 때

시편 말씀 붙들고 울며 주님께 원망과 탄식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희 가정에 주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기둥이란 것어요.

주님!!

비록 세상적인 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진 못하지만

영으로서 주님과 깊게 소통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건강과 평강을 간구하며 하루 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지은 집사 / 사랑나무 최명서 엄마

주님!

내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불편함이 없도록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19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무탈한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진 성도 / 사랑나무 김동현 엄마

하나님, 우리 예쁜 아이들한테서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미선 성도 / 사랑나무 유가양 엄마

사랑의 주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고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나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의 삶이 평온하며 웃음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하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금숙 집사 / 사랑나무 황상현 엄마

장애인 주일 특집
믿음고백

주님, 우리 믿음을 고백하오니 들어주소서!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무 힘들고 주변에 도움 청할 곳 없을 때 어느 날 접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함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며, 내 평생 주께만 의지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조경옥** 집사 / 싯딤나무

매일의 기적

적 그리스도와 같았던 이방인인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자체 기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김동관** 집사 / 싯딤나무

사랑나무에서 12년을

2021년 4월 18일은 주님의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나무 동헌씨가 주일 영상 뉴스 오프닝 멘트를 하고, 영진씨가 성경봉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나무 예배는 2009년 4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햇수로는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정말 쓸쓸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나무 교사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또 함께 사랑나무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다가 몸이 아파서 하늘나라에 먼저 간 두 명의 사랑나무 식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세영이와 도현이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사랑나무는 이유가 있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사랑나무 식구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송이 꽃보다 가벼운 삶이 어떤 날엔 이슬에 젖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날에도 이슬에 젖기도 합니다.
그 어떤 날에... 그 어떤 날에... 촉촉한 가슴이...
그 어떤 날에... 촉촉한 눈이... 마알간 눈과 가슴으로 닿습니다...
이슬 머금은 꽃은 화사하지만
비에 젖은 모습은 망가질 것 같아 조금은 애처롭습니다.

잘 자란 나무들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저 푸르른 잔디밭에 앉아 기도를 드리며
곁에 서 있는 나무에게 마음을 기울여 기대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넘쳐도 아프지 않아 좋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한번 사랑나무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사랑으로의 여행이...
드문드문한~ 일상사의 한 자락을...

오롯이 맞닿을 푸르른 사랑을 향하여...
이다지도 파릇한 사랑을 찾는 가슴이 있을까요?
모두 다룰 답을 수 없어...애틀한...
가끔은 흔들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들 커다란 빛은 모두의 푸르름의 사랑을 밝힙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가꾸시는 주의 사랑을 봅니다. 뜻이 있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정상화 되어 사랑나무 예배실에 모여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형섭** 장로 / 사랑나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하나

장애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장을 펼쳐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육체의 손상을 입고 휠체어나 각종 보장 기구에 의지 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모두 늙고 병듭니다. 육체의 기한이 다 되면 모두 어딘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장애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동등한 지체 의식을 갖고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주일을 맞는 주님의교회 성도의 지극히 작은 바람입니다.

물론 저희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성숙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가득함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혜현** 집사 / 싯딤나무

감사의 고백

주님,
언제쯤 이 시련이 끝날까요? 소리 내어 외쳐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따뜻한 말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 이 소중한 행복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롬!
김성규 집사 / 싯딤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사랑고백

주님은 나의 _____입니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입니다.

1. 등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인도해 주시기에 (한재희)
2. 나의 "왕",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주께 하고, 주는 다 들어주시기에 (전선덕)
3. 생수, 내 영혼이 메말라 목마를 때 적셔 주시니까 (김선래)
4. 아버지, 내가 아들 이기에 (한군회)
5. 생명,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 (김동관)
6. 첫사랑, 잊을 수 없는 가슴 벅찼던 감동과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은혜 때문에 ♥♥ (최은희)
7. 피난처,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주시기에 (최금주)
8. 구세주,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숙자)
9. 내 사랑, 내 삶의 살아갈 이유를 주시니까 (김은선)
10.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죄와 사망에 있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나의 주인 (이민자)
11. 햇살, 나의 면역력이기에 (김성규)
12. Jesus!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기에 (한정섭)
13. 내 사랑, 나의 기쁨과 도움이시므로 (장연)
14. 내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기 때문에 (박현웅)
15. 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김창진)
16. 내 사랑, 하나님이기때 (김영미)
17. 믿음, 회개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종연)
18.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기란)
19. 친구, 항상 함께 축복해주시기 때문에 (심미수)
20. 생명, 날 살게하는 분이요 기도로 날 살리시기 때문에 (한경식)
21. 사랑,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여우옥)
22.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노영옥)
23. 사랑고백,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민수)
24. 믿음,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기 때문에 (홍경선)
25. 사랑,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온주)
26. 하나님,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심성임)
27. 나, 주는 나와 같기에 (이성희)
28.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해)
29.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상복)
30. 친구, 정이 있기에 (팜탄향, 유충우)
31. 설레임,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김은희)
32. 모닝커피,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을 주시고 깊은 향기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니까요~~^^ (이지은)
33. 튼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강미선)
34. 삶의 중심,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시니까 (이금숙)
35. 롤모델, 주님의 매력적인 모습을 닮고 싶기에 (배윤환)
36. 표백제, 나의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노홍주)

장애인 주일 특집
장애인사역부 소개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귀한 사역

소통이 어렵고 힘도 들지만 그만큼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서가 장애인사역부입니다. 장애인사역부에는 사랑나무, 싹틔나무, 에바다가 있습니다. 사랑 나무는 자폐성장애, 싹틔나무는 지체장애, 에바다는 청각장애를 가진 교인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사역부 활동도 온라인을 통해 겨우 명맥을 잇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각 사역부별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있는지 서면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함글함글

사랑나무 | 탁준한 부장

두 딸이 나의 선배

현재 담당하시는 사랑나무 사역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서는 특별히 사랑이 넘쳐나는 스물네 분의 선생님들이 사랑나무 친구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나무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역하시는지요?

친구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사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무에서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나무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사랑나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나 간식 시간 약간의 도움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무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두 딸들이 장애인 복지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지만, 가끔 멍이 들어서 집에 돌아와도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두 딸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아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나무 사역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천사같은 두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잠시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랑나무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주일에 교회를 와서 텅빈 사랑나무 예배 공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줌(ZOOM)을 이용한 영상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친구들은 계획된 일과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친구들인데, 기약없는 코로나에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친구들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는 건 아닌지, 부서를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서 활동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하게 될 때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로 부임한 노홍주 전도사님과 저희 교사들 모두는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사랑나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천사같은 친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속히 세워지기를 사랑나무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당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보다 사랑나무 친구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싹틔나무 | 한재희 부장

사랑이 필요한 바로 이곳

싹틔나무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싹틔나무(지체장애인)부는 이민자 권사님(지도), 김선래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김훈 집사님, 윤정우 집사님, 송선남 집사님이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싹틔나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싹틔나무의 성경 공부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장애인 구역에서 주차 안내 및 휠체어 조립과 이동을 맡고, 식당에서는 식사 보조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반찬을 배송해 드리거나 정기 검진을 도와드리고, 야외 예배 등 야외 활동과 수련회를 주관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예배를 제외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역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서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장애인사역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싹틔나무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이전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봉사가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만난 그분들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역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의 건강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각자 자주 병원을 다니는데 작년 초에 교회에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장애인 식구들 모두가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격년으로 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하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부서 내 한 봉사자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내 지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를 모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장으로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9면에 계속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부어주실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8면에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싹틔나무 활동이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싹틔나무에는 평소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편히 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의 지속으로 교회에 오는 것조차 불안해졌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는 소규모의 교제를 안전한 가운데 지속하고 있으며, 비대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와 장애인사역부 온 가족이 다함께 이 시기를 강건하게 헤쳐나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서 활동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를 모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부어주실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분들은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함께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나설 이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날에 배려나 표현보다는 그저 보통 날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에바다부 | 서옥숙 지도권사

마음이 뜨거워졌던 수화 통역

에바다부 활동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에바다부는 농아인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부서 지도로 배운환 목사님과 김은선 전도사님, 한재희 부장님, 박부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바다부에서 권사님이 주로 하시는 역할은?

주된 사역은 예배를 수화 통역하는 일입니다. 또한 농아인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아플 때 병원 진료 등 크고 작은 삶의 여러 일들을 함께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상처를 예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기쁘게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부에 참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수화를 처음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장애인부서에 활동하시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느 교회 봄가을 수련회 때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함께 한 경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일을 찾았습니다. 뉴스에서 우연히 수화 통역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최영숙 권사님을 만나서 수화를 배우게 되면서 농아인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바다부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처음 수화를 배울 때에는 농아인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대답 또한 못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에바다부 활동이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농아인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할 때도 영상으로, 줌으로 계속해서 만나며 교회의 상황과 시대의 어려움을 나눴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부서 활동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교회 내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수화를 못해도 입 모양으로 대부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핸드폰에 써서 대화하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신다면, 절대로 어려워 마시고 저나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부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화 통역이 가능한 성도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마다 장애인들 위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역부
모십니다

서로의 힘과 위로가 되어요!

무엇이든지 함께 할 때 더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 재미 있고 의미 있게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사역과 삶의 노래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주님의교회 장애인예배 / 장애인사역부

에바다 주일예배 10:30, 3층 초등부실

사랑나무 주일예배 11:00, 줌

싹틔나무 주일예배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주는 주인 되시고,

삶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 예배에 참여하거나 사역을 함께 하고싶으신 분 연락주세요!

에바다, 싹틔 - 김은선 (010-4773-8186)

사랑나무 - 노홍주 (010-4859-4004)

김은선 전도사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 주일 특집
읽을 만한 책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엘런 노트봄 지음, 신희민 옮김, 한울림스페셜, 2016.

자폐에 대하여 자폐아가 말하는 책

자폐성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둔

저자 엘런 노트봄의 조언과 정보

자폐아동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

오늘은 자폐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은 13,331명으로 집계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레인 맨(Rain Man)>이라는 영화를 통해, 국내에서는 <말아톤>이라는 영화로 대중에게 다가온 자폐성 장애. 우리 주변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책은 자폐 아동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폐성(Autism) 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책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하며, 자폐 아동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과 행동들이 그들 나름의 언어소통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며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다.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는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쓰여진 이야기이다. 저자 엘런 노트봄은 자폐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진 두 아들의 어머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과 상담, 방송 활동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노홍주 전도사 / 사랑나무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하나, 나는 어린이예요.

자폐성 장애는 내가 가진 전체적 특성의 한 부분. 나는 아이니까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둘, 나의 감각은 무척 예민해요.

매일 벌어지는 평범한 광경,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여러분들이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들이 나에게서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어요.

셋,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달라요.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단지 말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반드시 나한테 직접 와서 알기 쉽게 말해주세요.

넷, 난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죠.

“눈 좀 붙여!” 이런 말들은 난 알아 들을 수 없어요. 잠을 자라는 뜻이지만 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 식은 죽 먹기잖아.”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죽을 찾으려 할 거예요.

다섯, 나는 의사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는 어휘력이 부족해요.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내 감정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당장 나의 느낌들을 글로 표현하는데 힘들어해요.

여섯, 이미지! 난 시각에 의존해요.

말로 하는 것 보다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면 더 좋아요. 시각일정표를 만들어주면 하루의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일곱,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에게 장점을 찾으려 노력해주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구나.’ 또는 ‘고쳐야 할 점이 많은 아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덟,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른들의 눈에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아 운동장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건 내가 말을 걸거나 놀이에 끼어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홉, 분노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하나 또는 여러 감각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쏠릴 때 내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열,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세요.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세요.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자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게 해요.

사역소식
어와나 트렉

비대면 시대의 에세이 특강

어와나 트렉은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자 교육 부서입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신약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중학생친구들과 함께 라이브 'ZOOM'매체를 통하여 함께 통독을 합니다. 통독을 마친 후에는 먼저 읽은 성경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된 양식에 맞춰 에세이를 적어 보는 활동까지 이어갑니다.

통독을 마친 후 에세이를 쓰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트렉 활동하는 날에는 함즐함울 편집장 장경식 집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편집장 장경식 집사님의 강의를 통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솔직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글을 마주하는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마치며 트렉 단원들은 첫 에세이로 요한복음을 써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직접 손으로 쓴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백양선 전도사 / 어와나 트렉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한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

성경요약과 소감

요한은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고자 예수님의 생애와 여러 사건을 설명해주며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독자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제자들에게는 자지 말라고 하신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아예 누워 자버린다. 예수님은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모습은 자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람같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설은우 / 어와나 트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까먹고 달렸던 나

나의 한 구절

요한복음을 읽어보니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요약과 소감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길을 가는지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을 보고 나에 대하여 회개를 했다. 요즈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까지 까먹고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면서 기도도 자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나는 요한복음을 읽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희원 / 어와나 트렉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가

나의 한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성경요약과 소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만남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5장은 예수님의 치유하심,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 7~1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2~17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죽기 전의 마지막 사역을 하신다. 18장에는 예수님을 시키하는 사람한테 잡히어 심판을 받으시고 19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돌아가신다.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고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끝난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어려워서 되게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읽

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많이 읽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다. 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구절을 읽고 지난번 2021 신년 특새 때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었다.(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음에 들었다. 예전에 어와나 때 외운 구절이다. 이 구절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하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정의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모든 것 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정세은 / 어와나 트렉

나의 주님의교회 공모전 수상작
주님의교회상 고등부 맹채린

나의 주님의교회

처음 이 공모전을 보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다.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분명 나 말고도 주님의교회에 대해 말을 해줄 사람은 넘쳐날 것임에도 말이다. 하지만 나도 말 한마디 정도는 없고 싶어 짧게나마 글을 써본다. 왜냐하면 나의 2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은 주님의교회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과 만나다

나는 이곳이 첫 교회이고 교회라는 존재가 주님의교회밖에 없는 줄 알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는 첫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이곳 주님의교회에서 만났고, 교회의 활동들은 내 첫 친구인 이 친구를 비롯한 교회를 통해 만난, 마음을 나눈 친구들과 언제나 붙어 다녔다. 내가 힘들었을 때도 날 놓지 않아 주었던 이 친구들은 내가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할 때 날 위해 눈물을 흘려주기도 했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이 친구들만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처럼 소중한 친구가 하나 혹은 둘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 또래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딱히 친한 친구 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온다고 한다. 그렇기에 교회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교회가 그리 소중한 곳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도 다른 교회였다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님의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싶다.

이 친구들과는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지금도 가끔 소식을 주고 받으며 만나고 있다. 그래도 역시 매주 주일마다 만나던 그 시절이 더 좋아서, 얼른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이다.

모태신앙, 사춘기가 오다.

나는 성장하며 유아부와 유치부를 지나 중등부까지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이유는 다양했다. 활발해서, 성격이 좋아서, 또는 성경 지식에 해박한 우등생이라거나 기도 내용이 좋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 때 나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당시 나와 초면인 담임목사님께 내 뒤에서 따로 내 칭찬을 해주실 정도였다.

그렇게 청소년기 전까지는 아무런 탈 없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다. 특히 수련회를 가장 기대하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를 즐기는 아이였다.

그런데도 사춘기는 나에게도 찾아왔는데, 애석하게도 내 사춘기의 시작은 신앙심의 사춘기와 맞물렸다.

나는 모태 신앙이라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였고,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의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에게 하나님이란 처음부터 내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존재였고, 꿈을 꾸는 것도 언제나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만큼 단 한 순간도 나와 교회를 떼어내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나를 보시면 커서 꼭 우리 부서로 와서 교사를 해달라고 하셨고, 나를 보신 어른들은 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른이 되면 신앙심이 누구보다 충만해진 채로 엄마를 따라 유아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어린 내 눈에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인생계획이었는데, 중등부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보다는 성경 말씀에 의문이 들었다. 특히, 어른 위주로 설명되는 전도사님들의 설교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인 나로서는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설교는 그 행동을 취한 어른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다.

그 의문을 가지고 끄끅 앓기도 잠시, 나는 어른들께 도움을 구해 보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 처음은 엄마였고, 그 다음은 내가 속해있었던 중등부의 전도사님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고 어른들은 내 맘을 모르시는 채로 이런 고민을 벌써 하다니,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날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새로 생겨나는 의문과 반복되는 대답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의문과 불신에 빠져갔다.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던 내 과거는, 현재는, 미래는, 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점점 신앙심이 성장해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뒤쳐진다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심과 성경 지식이, 그것에 비롯한 자신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나도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내게 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특히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였다. 모두 내게 너무 상냥했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사실은 모두가 내게 거는 그 기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의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 내 모습을 보이면 이전의 당당하고 상냥한 모습을 좋아해 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리라 생각했다.

교회와의 이별

그렇게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주일에는 아프려고 별 노력을 해보기 시작했다. 피병도 많이 부러웠고, 일부러 밤에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채로 집에 남기도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등부 당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내 인생이라는 열차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는데, 공과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해나 자살은 탈선과도 같다. 그런 행동을 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때 나는 수 없는 자해를 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팬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멍하니 고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정말 교회와는 끝이구나. 어차피 천국에 가지 못할 거 뭐하러 교회에 가냐는 생각이었으므로.

당시에 나는 중등부 찬양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로 토요일에 모여 하는 연습과 일요일에 일찍 와서 하는 예배 준비를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자연히 출석률은 떨어졌고, 모두의 걱정도 함께 커졌다. 내가 연습에 참여한 날은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연습에 참여하고도 주일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말라간다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시절이었다. 물론 그 중간중간 그래도 모두의 기대를 한 번이라도 충족시키고 싶었는지, 대표기도라던가 찬양 인도를 해 보기도 했다. 다만, 그것은 모두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써 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중등부를 졸업하게 되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만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

고등부에 올라오다

나는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로 고등부에 올라왔고, 내 어리석은 행동은 반복되었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고 다짐했지만, 고등부에서의 첫 수련회에서 찬양팀의 매력에 매료된 나는 겁도 없이 또 찬양팀에 들어가고선 연습에도, 예배에도 안 나가기를 반복했다. 친구들은 전부 찬양팀이 아닌 예배 준비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였던 친구도 없는 찬양팀에 좀처럼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활동은 매주 찬양의 가사를 숙지하고 묵상한 내용을 선생님께 보내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시간만큼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기분으로 임해야만 했다. 하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 앞에서 내 글이 초라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매주 신실한 척하는 내 모습이 정말 끔찍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구든 금방이라도 내 묵상도 아닌 ‘소설’이 가짜라며,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난 그때까지 쌓아놓은 내 이미지를 무너뜨릴 용기도 가지지 못해 몇 주가 넘는 시간 동안 딜레마를 안고 찬양팀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흐르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흘러 어느새 또다시 수련회에 참가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꾸어준 이 수련회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수련회와 변화

교회에서 수련회 신청을 받는 기간에 엄마께서 나에게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다. 내 중등부 때의 대표 기도를 듣고 나에게 궁금해하신 목사님이 계신다고. 당시에 나는 나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보이시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피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수련회에 가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나와 그분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드러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 그만큼 내가 절박했다는 의미였겠지만.

그렇게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목사님 한 분만 보고서 수련회에 참가했고, 혼자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통성명을 시작했다. “목사

님, 저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맹채린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셨다.

“채린아”내 이야기가 끝나자 목사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입을 여신 후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나님은 달을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부 괜찮다고, 자해를 하더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해주셨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목사님은 그 이후로 나를 계속 신경 써주시며 나를 계속 긍정해주셨고, 나는 내 아픔을 이겨내는 데에 목사님께서 매우 큰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도 탄성이 각자 다르다고 한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유년 시절에 자신을 아낌없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생은 어린 나이가 아니고, 분명 나는 이겨낼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내가 살아온 길에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신 부모님과 수많은 전도사님, 어른들이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나는 나 스스로가 나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임경순 목사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목사님께서서는 언젠가 하셨던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직접 체험했고,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해주셨다.

이별과 만남

내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피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건 언제나 나만의 문제였지 그분들은 언제나 나를 생각해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려고 하셨다.

특히 내가 지나가듯이 꺼낸 작은 말에도 나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은 몇 번을 겪어도 언제나 새롭다.

한때는 내가 불임성이 좋아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신경 써 주시는 것이었다.

그걸 상기할 때마다 그분들의 상상도 못 할 사랑에 늘 감사하다.

그렇기에 전도사님들이 떠나실 때가 오면 언제나 슬펐다.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왔기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다.

특히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던 시절에 여러 핑계로 마지막까지 찾아뵙지 못한 전도사님들께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오래갈 것 같던 감정들을 추스르고 나면 새로운 인연이 우리 청소년부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걱정에 휩싸였다.

“어른들을 피하는 내가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지금 보면 꽤 귀여운 걱정이었다. 무서우면 그냥 피해도 됐을 텐데, 무슨 이쁨을 받고 싶어서 전도사님들과 친해지고 싶었을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는 많이 변했고 그건 주위 사람도 환경도 마찬가지였다.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교회였다.

주님의교회만은, 나의 교회만은 변함없이 내 뒤에서 묵묵하게 나를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공간이자 존재였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전도사님들은 이미 우리를 예뻐해 주시지만, 그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졸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내 노력이 아깝지는 않다. 인간관계는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정성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언제나 내가 드리는 정성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어 용을 썼던 건 아닌지 조심히 추측해본다.

그렇게 나와 연을 쌓아주신 데다 기도해주시면서 날 격려주시고, 날 언제나 귀하다 말씀해주신 김수연 목사님, 임경순 목사님, 왕상현 목사님, 양기훈 전도사님, 박국이 전도사님, 조영찬 전도사님, 백양선 전도사님, 이요안 전도사님, 정우림 전도사님, 최혜원 전도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물론 이렇게 만으로는 내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없겠지만, 감사는 표현할수록 좋은 게 아니겠는가? 부디 이 글을 기회 삼아 직접 마주 보고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다른 이를 위한 신앙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고, 특히 엄마와 딸인 나는 사이가 매우 돈독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은 어릴 적부터 엄마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엄마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것이었고, 엄마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용기를 낸 것에 대해 엄마께서 좋은 반응을 내주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 같아 자존감이 밀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만큼 엄마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나의 엄마 바라기’는 신앙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엄마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분이 매우 나빠지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요일은 냉랭한 하루라 봐도 무방하다. 교회가 싫고 무서웠을 때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엄마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교회에 나갔고, 수련회 내내 참가할 기분이 아님에도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꾸역꾸역 수련회에 참가했다.

당시 내 ‘수련회 공포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찬양만 들어도 멀미가 나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억지로 토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었다. 그게 내 청소년 시절 수련회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나아진 시점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련회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진행했던 성경 필사 또한 엄마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기한 내에 필사를 끝마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줄게.”

시작은 엄마의 제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써 내려가며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인 민수기 6장 24~26절이 나왔을 때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께 달려가 ‘이 부분을 썼다’라며 이야기도 했다.

참고로 이 구절은 외할머니께서 어릴 적 외우라고 하셨던 구절이다. 만약 할머니께서 이 구절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엄마께서 내게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분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엄마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꿈을 다시 찾다

나는 어릴 적에 비전이 없었기에 ‘꿈을 갖는 것이 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는 이 말이 나를 멋있게 포장한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요란한 빈 수레가 따로 없다.

지금은 그랬던 시절을 채우듯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아져 곤란한 참이다. 비전이 없던 시절 제대로 된 꿈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정보도 적고 경쟁률도 굉장히 센 직업에 매료되어 고3인 지금까지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물론 세상에는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하나의 꿈만을 보고 달려왔다는 것이 내게 조건 없는 이득을 주지는 않았다. 내 신앙과도 연결된, 한때 내 모든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이 꿈이 한번 흔들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앞에 서술한 것처럼 방황하기를 몇 년, 겨우 안정을 찾은 내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다.

글쎄, 내가 롤모델로 삼은 분이 주님의교회 권사님이시라지 않은가? 게다가 엄마와 친한 집사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시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그야말로 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주님의교회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 만남을 청하고 신년예배 직전에 권사님을 뵈었을 때의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정말 잘나라고 느낄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고, 꿈에 대해 열정만 있고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아 지쳐가던 나에게 길을 찾고 다시금 각오를 다지게 해준 정말 감사한 기회였다.

그때 만남을 청한 이후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용기 내 만남을 청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꼭 권사님께, 나와 권사님을 연결해주신 집사님께, 내 꿈을 응원해주시고 이런 귀한 연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나서주신 엄마께, 꼭 네 꿈을 이루라는 듯 응원처럼 이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싶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다.

나의 목표

우리 뇌에는 ‘목표 지향 체제’라는 것이 있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그 예 중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그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스크랩하거나, 메모를 남기기도 하면서 말이다.

나는 다른 이들에 비해, 심지어 또래보다도 신앙심이 뛰어나지 않다.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물어볼 때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는 간증마저도 나에게 조금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나는 ‘굴’이라는 기록을 남겨 내 목표에 다가가려고 한다. 물론 내 목표는 남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글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내 노력의 첫 번째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는 많이 변했고 그건 주위 사람도 환경도 마찬가지였다.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교회였다. 주님의 교회만은, 나의 교회만은 변함없이 내 뒤에서 묵묵하게 나를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공간이자 존재였다.

그렇기에 주님의교회에, 주님의교회의 모두에게, 내가 지금까지 활자로 표현한 감사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을 내 소중한 이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맹채린 / 고등부

목회 칼럼

비정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광인, 즉 미친 사람을 오늘날과 같이 비정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인을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겼고 마치 신이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고 광인들을 대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가 지나고 유럽이 르네상스를 맞이했을 때 사회는 미친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던 광인을 이제는 우리 공동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인들을 모아서 배에 태운 다음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평범한 일반인들’과 ‘이상한 광인들’과의 공간적인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세기에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광인들을 죄수들과 함께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광인들은 사회의 질서 안에서 받아들이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광인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정신병원이란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정상이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정상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 이런 식으로 이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였고, 사람들은 비정상이 되기 싫어서 자신을 꾸미고 스스로 통제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꾸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면 이러이럴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차분하고, 행동도 바르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목사님답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목사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일종의 가면 장치들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하게 걷다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느새 바른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표정은 아주 온화해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은폐와 위장을 사용합니다. 인상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관리하고 옷과 행동 등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자신의 모습을 꾸미다 보면 그것이 나의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시간 가면을 쓰다보면 어느새 가면이 나의 얼굴과 하나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곳과 가면을 벗고 살아가는 곳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곳에서 가면을 씁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연기하는 무대입니다. 가면 뒤에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무대에서 계속 가면을 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편한 곳에서는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자신의 옛날 모습을 아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가면을 벗고 예전에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이나 몸짓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가 쓴 가면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율법도 아주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 지식은 누가봐도 바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밝고 싶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바울을 닮고 싶은 워너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에서 비정상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비정상이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모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 채,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어느새 내 얼굴에 달라붙어서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내 가면이 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버립니다. 이처럼 내 진짜 모습과 가면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첫 생일에 돌잡이란 것을 합니다. 돌잡이 상 위에 공, 판결봉, 청진기, 현금 등을 올려둡니다. 돌잡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아기가 무엇을 잡을까 집중합니다. 아기가 이거저거 고민하다가 연필을 잡으려 할 때 갑자기 진행자가 상을 기울이면서 연필이 아기와 멀어지게 합니다. 아기의 부모님이 연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아기는 이거저거 살펴보다가 청진기를 잡으려 합니다. 그제야 진행자는 아기가 청진기를 잡기 쉽도록 상을 더 가까이 해줍니다. 비로소 아기는 부모님이 원하는 청진기를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막 쳐줍니다. 이 상황을 아기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점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남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목상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남을 위한 성경 읽기나 남을 위한 목상을 하면 안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목상하면서 아, 이 말씀, 누구에게 보내줘야겠다. 누구에게 전해줘야겠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읽기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욕구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욕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꾸미고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비정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윤경수 목사



평남노회 목사 안수예식



제194회 평남노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20일(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부에 거행된 목사안수예식에서 주님의교회 유준 목사와 서예림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유준 목사는 소그룹 분과와 행정, 양육 분과와 찬양 새가족과 피택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예림 목사는 영아부와 유아숲 행정, BPC 행정을 맡고, 함글함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함글함글**

교회소식
생명사랑 이웃사랑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이웃 지원

주님의교회의 한 성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목적헌금(2억원)을 함에 따라, 교회에서는 교회 안 성도(79명)와 교회 밖 평남노회(31개 교회), 형제교회(7개 교회), 농어촌교회/개척교회/기관(27개 교회 및 기관), 기아대책(섬김과나눔), 정신학교에 이를 전달했다. **함글함글**

지원 대상		금액	기타
교회 안		8,200 만원	79명
교회 밖	평남노회(31개 교회)	5,000 만원	31개 교회
	형제교회	2,000 만원	7개 교회
	농어촌교회 / 개척교회 / 기관	1,800 만원	27개 교회 및 기관
	기아대책(섬김과나눔)	1,000 만원	
	정신학교	2,000 만원	
합계		2억원	

알립니다

함글함글 유유청청 지상 백일장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의교회 유유청청을 대상으로 지상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시대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글을 가까이 하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꿈나무, 유유청청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부문

유아숲 : 시화(동시 + 그림)

유소년숲 : 동시, 산문

청소년숲 : 시, 산문, 간증, 콩트

청년숲 : 시, 수필, 간증, 콩트

제목

유아숲, 유소년숲 : 나무, 거짓말 중 하나

청소년숲, 청년숲 : 5월, 그림자 중 하나

마감과 제출

2021년 5월 31일까지, 제목에 <함글함글 유유청청 지상 백일장 응모>라고 쓰고, 작품을 첨부한 후 연락처와 함께 hamletter@daum.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출판부

교회 일정

5/2 (주일) 어린이주일
5/9 (주일) 어버이주일
5/16 (주일) 청년주일 / 교사주일

알립니다

1. 유아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교육 : 온라인 교육(2회, 4/18, 4/25)

유아세례예식 : 5/2(어린이주일) 3부 예배시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